



통일연구소 뉴스레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NEWSLETTER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연구소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Homepage: <http://tongil.snu.ac.kr> E-mail: tongil@snu.ac.kr

[통일연구소 개소식 개최]



통일연구소는 8월 29일(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문화관(통일 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축사를 하였고, 백낙청, 신용하 명예교수, 동훈 통일문제연구소장, 전현준 북한 연구학회장 등 내빈과 다수 교수님들이 참석하였다. 이후 통일 연구소 소개와 현판식이 진행되었으며, 다과회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사회학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통일 연구소가 정치적 발언과 이념적 논란에 좌우되지 않고 학문적 중립성과 객관적 분석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과 전국 적으로 산재해 있는 통일연구 역량을 한데 묶는 학술적 중심축

으로서 열린 통일연구를 지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장무 총장은 축사에서 통일연구소 개소의의가 서울대학교 의 주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통일학을 정립하고 통일연구소가 이를 총괄하게 된 것에 있다며 통일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나타 냈다. 한완상 총재는 축사를 통해 연구대상인 동시에 절박한 실 천과제이기도 한 통일을 위해 연구소가 힘을 실어줄 것과 아름 다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게 기여해달라며 당부했다.

연구소 소개에서는 통일연구소의 전신인 통일포럼이 현재까 지 진행해 온 연구지원사업내용과 통일연구소 출범과 함께 새 로이 구성된 연구소 조직 및 연구진, 통일연구소 로고, 앞으로의 계획 등이 설명되었다.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공모” 및 과제선정

통일연구소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제기될 제반 문제점을 진단·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일학 연구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 요강을 한 달간(2006년 9월 22일(금) 마감) 배포,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자유과제 23과제, 논문지원과제에 26과제, 박사학위논문지원에 3과제가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주제 영역에 따라 분과를 설립하여 각기 해당 심사위원회에 의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를 통해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을 선정하였는바, 기획·자유과제에 17과제(425,000천원), 논문지원과제에 15과제(75,000천원), 박사학위논문지원에 3과제(18,000천원)가 최종 선정되었다.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지원사업 선정 결과

1. 기획·자유과제: 17과제 425,000천원

- 총 23과제 648,844천원 신청, 17과제 425,000천원 선정
-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 5명의 심사자가 심사 선정
 - (1) 정치·외교·사회·교육·법분야 5개 선정
 - (2) 농업·경제·인구·환경분야 6개 선정
 - (3) 보건·의학·새터민분야 6개 선정

2. 논문지원과제: 15과제 75,000천원

- 총 29개 과제 145,000천원 신청, 15과제 75,000천원 선정
- 2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 4명의 심사자가 심사
 - (1) 사회과학·의학·환경분야 9과제 선정
 - (2) 인문·철학·역사분야 6과제 선정

3. 박사학위논문지원: 3과제

- 3과제 18,000천원 선정

선정과제명

1. 기획·자유과제

- 간호대학, 김금순, “남북한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 공과대학, 정창무, “통일 이후 노동인구이동 분석”
-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용환, “통일 후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 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 분석”
-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진용,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 지도 작성”
- 법과대학, 이근관,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 법과대학, 한인섭, “북한의 사형집행 및 강제수용소의 실제”
- 보건대학원, 정효지,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사범대학, 이은숙,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대학, 박경숙,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 사회과학대학, 배은경,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대학, 윤영관,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의 정치경제”
-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비교 시각”
- 사회과학대학, 장달중, “미북대립의 기원과 전망”
- 생활과학대학, 이연숙,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수의과대학, 신남식, “DMZ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 의과대학, 황상익, “1960, 70년대 체제 안정기의 북한보건의료”
- 행정대학원, 정광호,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2. 논문지원과제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남원진, “‘고난의 행군’ 이후 ‘이북문학’의 근대 미학 연구 -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 양식”
- 경희대학교, 정현수, “조선족의 구술증언으로 본 해방직후의 북중관계”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정종현, “신남철과 ‘대학교’라는 제도-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교와 신남철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 사회 통합과정에서 계급구조의 재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임경훈, “북한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전략”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채종일, “남북간 인체 기생충 및 기생충학 학술용어의 비교 연구”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박성조, “EU 및 독일에서의 통합지수 연구에 대한 고찰”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통일후 남북한의 통합환경정책비전 및 전략개발”
- 서울사이버대학, 조영아, “북한이탈주민 상담 모형 개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박영자, “사회변동기 북한여성의 생존전략과 발전전략 (1995-2006):경제위기와 선군정치시대 북한 권력과 여성의 ‘작용-반작용’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전우택, “탈북자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의식에 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권도경,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전설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윤기관, “남북통일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 한북대학교,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교차분석:거시-구조와 미시-행위를 중심으로”
- 호주 멜본 대학, 이희진,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사례연구”

3. 박사학위논문지원

-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차승주, “북한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소학교 및 중학교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광정래, “탈북청소년의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이 개인성과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문대학 국사학과,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소 개소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통일연구소는 2006년 5월 1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를 대주제로 하여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 개최식에서는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민족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현상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통일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일연구소가 많은 유용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과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비전과 성취과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의 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의 제1부 연구소 창립 기념패널에서는 장달중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고유환 교수(동국대), 김석향 교수(이화여대), 박영규 원장(통일연구원),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이영선 교수(연세대), 전인영 교수(서울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최완규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2부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의 사회심리적 통합방안연구”와 “남북한 경제 통합과 협력방안 연구”로 주제를 구분하여 각기 김광웅 교수(서울대)와

유우익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제1부 연구소 창립 기념패널에서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는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간 접근을 통한 변화’와 ‘남북 각자의 변화를 통한 접근’이 상당기간 병행되는 독특한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기존의 교과서나 학문편제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이면서도 면밀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규 통일연구원(KINU) 원장은 통일연구소가 산·학·연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역할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전공자를 확보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연구영역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학계의 고유한 장점을 살려 경쟁력 있는 학술적이고 이

론적인 기초연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완규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바로 통일분야의 연구수준을 제3세계 수준에서 제1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는 국립 서울대에 통일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줄 것과 통일에 대비한 전략개발과 통일 이후 통합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과제 추진, 통일학연구와 북한학 연구를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향 교수(이화여대)는 앞으로 연구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역할을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영선 교수(연세대)는 통일학, 북한학을 별개로 한 연구보다는 양자가 연계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기초연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 전인영 교수는 외부연구인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또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현백 교수(성균관대)는 학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서울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연구가 급박한 과제에 전념하는 연구를 넘어서서 통일문제를 보다 발본적으로 고민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에 바란다

-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한반도 고유의 통일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의 연구”
- 박영규 원장(통일연구원) “교육과 연구의 병행”
- 최완규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통일분야 연구수준을 제3세계 수준에서 제1세계 수준으로!”
-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통일담론의 선도”
- 김석향 교수(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소외받은 연구영역을 찾아서!”
- 이영선 교수(연세대) “통일... 그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 전인영 교수(서울대) “외부연구인력과과의 조인트...”
-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좀 더 기초적인, 호흡이 긴 연구를...”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와 한반도: 동북아시아 에너지포럼을 위하여



통일연구소는 11월 27-28일 양일간 University of Washington의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와 공동으로 “Energy, Regional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Toward a Northeast Asian Energy Forum”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총 3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문제의 방향과 에너지 문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에너지포럼(가칭)”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북한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하용출 서울대 교수, 류지철 에너지

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장, 미국에서 Donald Hellmann 워싱턴대 교수, Carol Kessler PNNL 안보연구소장, 한반도 전문가인 국무부의 Robert Manning, Tony Namkung 뉴멕시코 주지사 외교정책보좌관, Robert Carlin 전 KEDO 선임연구원, 러시아에서 Nodari Simoniya IMEMO 원장, 중국에서 Xia Liping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 일본에서 Kobayashi Yoshikazu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원, 파리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Osumi Yo DALSA 책임자 등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20여명의 국내외 학자와 정책분석가, 정부관리 등이 대거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에너지 안보 전문 학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이튿날인 28일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포럼의 발족을 통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한반도 통일, 어디로 가고 있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9월 6일(수) 오후 4시 법대 서암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제1회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장담중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강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 어디로 가고 있나?: 남북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강연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위기상태를 타개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투자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정치·군사·안보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령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북한에서 30만명 정도의 노동력이 더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노동력은 북한 내에서 가장 양질의 노동자원인 군 병력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균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



다. 따라서 북한 문제는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즉, 북한의 변화 움직임과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를 처음부터 정치·군사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접근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제적인 관계 개선부터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이나 동구의 여러 국가들의 체제전환도 이러한 “입구론”의 중요한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남북

한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커진다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에는 30여명의 교내외 교수 및 학자들과 더불어 100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발제 전재성 서울대 교수 토론

11월 21일(수) 오후 4시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김근식 교수를 초청하여 제2회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통일정책포럼에서 김 교수는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6자회담과 남북관계”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지난 10월 9일의 북한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이에 대한 북한의 정책,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위기상황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언론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교



수의 이번 발표는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정리하고 6자회담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본교 외교학과의 전재성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 초청 특별강연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선택]



통일연구소는 10월 19일 오후 4시,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에는 1,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강연을 마친 김 전대통령은 이후 40여분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통일, 인생에서의 선과 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학생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김 전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과 “서생적 문제의식” 및 “상인적 현실감각”, 결정에 앞선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외교하는 국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햇볕정책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철호, 사범대 사회교육계열)을 비롯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해결방안(김유리,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핵실험 사태 및 PSI에 대한 김 전대통령의 대안은 무엇인지(이지현, 외교학과 석사과정), 통일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의 실효성(김성민, 인문대 국문과) 과 김 전대통령의 삶에서의 종교적 신념(김해든, 법과대학 법학부) 등에 대한 질문이 차례로 이어졌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김 전대통령이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 전대통령은 응답을 통해 햇볕정책의 성과로 북한 민심의 변화, 핵실험 이후 비교적 남한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양자 협력과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체제를 해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어느 세대보다 청년들이 남북간 화해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통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통해 물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대북지원 NGO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통일연구소는 9월 22일(금) 오후 4시,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를 초청하여 “대북협력 NGO 활동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NGO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기범 교수는 NGO들의 대북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에 피로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긴급 구호나 단순지원 단계를 벗어나 개발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개발을 국제기구에 맡길 것인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대북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전문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인도적 지원문제와 어떻게 결합하여 풀 것인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문 제임을 제기했다.

대북지원 NGO의 사업평가 및 북한 핵실험 이후 활동방향,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

통일연구소는 11월 8일(수) 오후 4:00부터 이일하 굿네이 버스 회장을 초청하여 “대북지원 NGO의 사업평가 및 북한 핵실험 이후 활동방향”을 주제로 NGO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일하회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97년 처음 평양을 방문한 이후 줄곧 인도적 대 북사업을 펼쳐 왔으며 북한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대북사업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앞으로 NGO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제계의 진출이 확대돼 북 한의 단계적 개방을 촉진하고 화해와 협력을 증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터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취업과 직장생활, 양영창 자유시민대학 학생처장

2006년 11월 15일(수) 오후 16:00-18:00, 통일연구소 세 미나실에서 <새터민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명규 교수(통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새터민 포 럼에서는 양영창 자유시민대학 학생처장이 “새터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취업과 직장생활”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양영창 처장은 발표에서 새터민의 경제자립과 관련하여 나 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직업교육에 있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진로의사결정 능력 부족, 직업상담을 통한 판 단과정 미흡 등을 지적하였으며, 취업과정에서의 정신적·육 체적 건강 약화, 단기적 시각에 의한 결정, 취업 눈높이 조정 능력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새터민들은 북한에서의 계급적 경험과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이중적 인성, 느슨한 노동관행 등이 남한 입국 이후에 도 지속되고 있으며,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기간 동안에 접한 한국사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 정신·육체적 질병의 악화로 인해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남 한 입국 이후에는 새터민들의 혼인문제, 부부간 불화 등이 불 거져 새터민들의 정신적 불안정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앞으로 새터민 여성,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새터민 지원 NGO와 연구소의 연계를 통한 시의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조 하였다.

통일학 세미나

[‘남북통합지수’ 사업 추진]



통일연구소는 중점연구사업으로 남북 통합지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

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간 통합의 수준 및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하는 연구사업으로 통일연구의 과학화·객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통합: 개념과 지수 개발”이라는 주제로 2006년 9월 28일 (목) 오후 4:00-6:00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세계평화지수 연구에 참여한 김병조 교수(국방대)와 한반도평화지수 프로젝트를 주도한 전영선 교수(한양대)가 초청되어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런치 세미나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황지환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소는 9월 20일(수) 12시 연구소 회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하에 제1회 런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황지환 박사의 발제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해외언론이 바라보는 한미

관계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황박사는 9월 19일이 6자회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1주년임을 상기시키며, 최근 북한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분명한 합의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언론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일정하게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었으며, 반테러전과 이라크 전쟁 등의 미국의 세계전략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GO 포럼 연구기획 토론회 개최, 김병로 연구교수·박정란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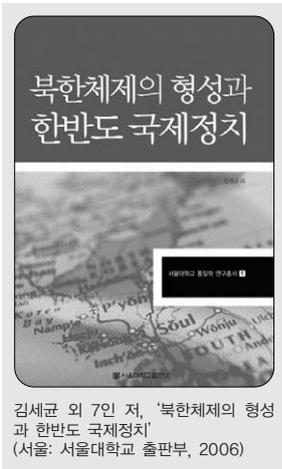
통일연구소에서는 9월 21일(목) 오후 13:30~15:00,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NGO 포럼” 연구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로 연구교수

와 박정란 선임연구원이 각기 “대북활동 NGO 현황”과 “대북활동 NGO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NGO 포럼 기획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 및 응답, 토론이 진행되었다. 통일연

구소에서는 이번 토론회 자료를 비롯, 향후 진행될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자료를 Working Paper Series로 명명하고 자료를 축적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1권,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출간 및 출간기념회 개최



통일학 연구총서 1권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통일학 지원 사업에 의해 진행된 ‘북한의 체제변화, 대외관계 및 남북한 통합의 모색’이란 기획과제 연구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본 기획과제의 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포괄하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 남북관계 및 남북 통합 전략, 국제정치

영역들 간의 복합관계를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을 구명하고 남북한 통합의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연구소는 지난 11월 8일(수) 12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통일학 연구총서 1권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교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 외 총 8명의 교내외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총서 1권의 집필진들은 이날 출간기념회에서 자신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국내 통일학 연구를 위한 힘찬 도약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집필진들과 연구소 연구진들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통일연구소는 앞으로도 교내외 통일학 연구성과를 격려하고 연구발전을 고무하기 위해 통일학 연구총서 집필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출판부와의 출판 약정서 체결, 출판위원회 출범

통일연구소는 10월 18일(수) 11시 30분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1차 통일연구소 출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통일연구소 출판위원회는 교내 통일학 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을 간행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이날 출판위원회 내규를 확정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 출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통일연구소는 그동안 서울대 출판부와 ‘통일학 연구 시리즈’의 출판에 관해 논의하고 약정서를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 출판부가 통일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의 출판을 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연구소 출판위원회의 발족으로 통일학 연구결과물의 출판심사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출판위원회의 출판심사를 통과한 연구물은 서울대 출판부를 통해서 ‘통일학 연구총서’와 ‘통일학 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연구소 출판위원회에는 기존의 연구소 인력 이외에 연구주제의 폭넓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황상익(의학과), 홍성태(생명과학부), 한인섭(법학과), 신욱희(외교학과) 교수가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학술사업, “원서로 읽는 독일통일” 강좌개설

통일연구소는 통일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00부터 2시간에 걸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베를린 자유대의 박성조 교수를 초청, 통일정책연구를 위한 독일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수강대상은 독일 통일,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독일통일의 긴박했던 상황과 이해갈등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통일수상’으로 불리는 헬무트 콜의 회고록(Erinnerungen, 1882-1990)을 원전으로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독일통일연구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독일통일 연구를 위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 제작 <<http://tongil.snu.ac.kr>>



2006년 8월 29일 개소식에 맞추어 통일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다. 개소식 시연에서 첫 선을 보인 홈페이지는, 연구소와 연구사업, 통일포럼 등의 소개와 더불어 온라인상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다. 이후 연구소의 활동과 더불어 온라인상 홈페이지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tongil.snu.ac.kr>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의 공지사항과 IUS 소식은 통일연구소의 각종 행사와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통일산책>은 교내 선생님들의 통일·북한관련 주제의 글들을 수필형식으로 담고 있어 독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통일연구소의 기초·중점연구사업에 대하여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연구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 안내” 메뉴 바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통일·북한관련 자료들을 수집,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연구소 주관 통일정책포럼, NGO포럼, 새터민포럼의 자료들을 비롯해 국제·국내 학술회의, 각종 세미나 자료를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다.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현황

- ▶ 8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총재, 백낙청 6·15 공동위남측위원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동훈 통일문제연구소장, 전현준 북한연구학회장, 서재진 북한사회문화학회장 등 개소축하 연구소 방문
- ▶ 9월. 박명규 소장, Hans Seidel Foundation 서울사무소 방문, Seliger 소장과의 학술회의 논의
- ▶ 9월. Chicago 대학 한국학과 최경희 교수 연구소 방문, 미국에서의 통일학 연구 논의
- ▶ 9월. 박명규 소장, 통일연구원 주최 ‘거버넌스’ 학술회의 참석

- ▶ 9월.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연구소 방문
- ▶ 9월. 일본 서경식 교수 연구소 방문
- ▶ 9월. 김병로 연구교수, 통일심포지엄 (63빌딩) 참석
- ▶ 9월. 박성조 교수 (객원연구원), 단행본 “한반도 붕괴, 북한을 상대할 전략은 없는가?”(랜덤하우스) 출간
- ▶ 10월. 박명규 소장, 고려대학교 북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참석
- ▶ 10월. 정세현 전장관, 김성재 전장관 등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참석
- ▶ 10월. 박명규 소장,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방문, 김강일 원장과 학술교류협력사업 논의
- ▶ 10월. 박명규 소장, 연변과학기술대학 방문, 주수길 부총장 면담
- ▶ 10월. 일본조선인역사연구소 오규상 교수 방문
- ▶ 11월. 안경환 교수 (겸임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
- ▶ 11월. 김병로 연구교수, 통일연구원(KINU)·한림대학교 공동주최 워크숍 참석, “통일시나리오별 남북한 사회통합 전망” 주제 발표
- ▶ 11월. 일본 간사이경제동우회, 통일연구소 방문
- ▶ 12월. 박정란 선임연구원,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참석, “여성 새터민의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주제 발표
- ▶ 12월. 박명규 소장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국제심포지엄 토론
- ▶ (2007년도) 하용출 교수 (겸임연구원), 차기 국제정치학회 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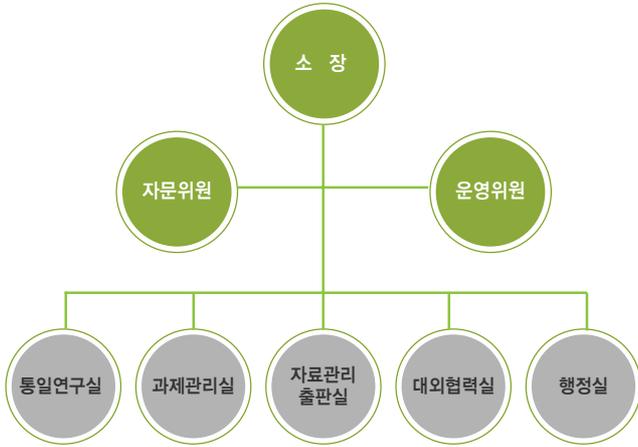
11월. 일본 간사이경제동우회, 통일연구소 방문

운영위원회 개최

- 1차: 2006년 7월 7일(금), 통일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 통일연구소 설립 경과, 창립기념 심포지엄보고, 연구원 선임 및 임용, 연구소의 전반적 운영방향과 2006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 검토
- 2차: 2006년 8월 29일(화), 2006년도 통일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 통과, 통일연구소의 사업을 크게 연구, 포럼, 교육, 대외교류 및 협력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3차: 2006년 10월 25일(수),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과제 선정

연구소 조직 및 구성원 소개

조직도



실소개

통일연구실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과 본교 다른 기관의 통일에 관한 연구사업의 조정
과제관리실	연구사업의 중장기적 기획조정, 기획과제의 발굴을 포함한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및 외부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출판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대출사업 등의 수행과 연구사업 결과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실	통일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 대외적 관계에 관한 사항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진

정근식	통일연구실장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이태호	과제관리실장	농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태균	자료관리·출판실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이근	대외협력실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김병로	책임연구원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황지환	선임연구원	콜로라도대 정치학 박사
박정란	선임연구원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박성조	객원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교수

스텝

문연주 연구조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김유리 연구조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수료
 최정심 사무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대학원 졸업

운영위원

직위	성명	학과	직위	성명	학과
위원장	박명규	사회학	위원	전인영	정치학
위원	송용상	의학	위원	박재형	의학
위원	권영민	국어국문학	위원	김병섭	행정학
위원	장달중	정치학	위원	정근식	사회학
위원	하용출	국제정치학	위원	이태호	농경제사회학
위원	곽수근	경영학	위원	박태균	한국사
위원	김태유	지구환경시스템공학	위원	이근	국제정치학
위원	정인섭	법학			

겸임연구원

성명	학과	성명	학과
권영민	국어국문학	박삼욱	지리학
전형준	중어중문학	조홍식	사회복지학
김명환	영어영문학	강명구	언론정보학
오생근	불어불문학	임지순	물리학
이승재	언어학	고철환	지구환경과학
노태돈	국사학	홍성욱	생명과학
정용욱	국사학	곽수근	경영학
김형중	동양사학	주중남	기계항공공학
최갑수	서양사학	박근수	전기컴퓨터공학
김영나	고고미술사학	이재홍	전기컴퓨터공학
김상환	철학	김태유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김문환	미학	김완배	농경제사회학
백창재	정치학	이태호	농경제사회학
장달중	정치학	이정재	조경지역시스템공학
김세균	정치학	안경환	법학
신욱희	국제정치학	정인섭	법학
윤영관	국제정치학	한인섭	법학
하용출	국제정치학	전인영	정치학
하영선	국제정치학	김기석	교육학
이근	경제학	이순형	소비자아동학
이승훈	경제학	박재형	의학
이지순	경제학	신희영	의학
정근식	사회학	황상익	의학
임현진	사회학	김병섭	행정학
장경섭	사회학	김정욱	환경계획학
배은경	여성학	백진현	국제정치학
김광억	인류학	이근	국제정치학
민경환	심리학	박태균	한국현대사

○ ○ 설립목적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통일을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통합적, 학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지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통일연구소는 서울대학교 내의 통일에 관한 연구 사업을 총괄/조정/감독하며, 나아가 통일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학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 다양한 남북한의 통합과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 통일 후 사회 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하며
- 한반도 상황을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미리적 차원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통일한국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학술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
- 통일관련 학술행사와 강연회
- 관련 연구자들의 지적 네트워킹
- 통일관련 의식조사와 포럼
- 국내외 학계와 관련 의제의 소통